

대학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사서의 지적 기반

Intellectual knowledge base of librarian
needed for the academic libraries

김정호,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kjh1975@pusan.ac.kr

이재환,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jwleeh@pusan.ac.kr

Kim Jung-Ho, Lee Jae-whoan, Dept.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초 록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어떠한 지적 기반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대학도서관에 필요한 사서를 양성하는데 적합한지 현장 사서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특히,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지식, 기술, 태도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이 요구하는 사서를 양성하기 위해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논의해보았다.

1. 서론

1.1 연구목적과 필요성

“요즘 젊은 사서들은 할 줄 아는 게 없어. 도서관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몰라.”

신규 직원을 채용한 대학도서관에서 갓 입사한 초보사서들을 보고 종종 내뱉는 소리이다. 현재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새롭게 배우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아예 대학도서관에서는 신입 사서들에게 각 업무에 필요한 지적 내용을 다시 가르치

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렸다. 대학도서관이 신입 사서를 재교육시켜야 하는 부담감은 그들이 문헌정보학과를 비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 이상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자격증만 가진 사서를 대학도서관 현장에 진출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는 대학도서관 현장이 예비사서들에게 어떠한 능력(competency)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서관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도서관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서가 도서관 현장에 투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중이나 업무에 따라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ALA나 ACRL, SLA¹⁾ 등의 전문가 협회뿐만

1) ALA에서는 문헌정보학 프로그램(MLIS)을 운영하는 기관 인증 기준 중 정보와 지식의 생산, 커뮤니케이션, 확인, 수서, 조직과 기술, 저장과 검색, 보존, 분석, 해석, 평가, 합성, 배포, 경영 등이 커리큘럼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ACRL에서는 Library school에서 교육할 때 ①사서직의 이론, 원리, 역사, ②고등교육환경의 심층적인 지식, ③학술활동을 위한 준비, ④ technology 이슈를 이해, ⑤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 프로그램 수행, ⑥계획과 경영, ⑦도서관 효과 평가, ⑧법률과 정책 이슈에 대한 지식, ⑨윤리적 이슈에 대한 지식, ⑩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감상 등을 Library school에서 교육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SLA에서는 전문도서관 사서들이 갖춰야 할 능력을 professional competencies인 정보자원, 정보접근, 테크놀로지, 경영 및 연구,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이용하는 능력과 personal competencies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경력을 통한 계속 교육, 공헌도에 따른 부가가치적 특성을 설명, 업무의 새로운 세계에서에서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태도, 가치를 제안하였다.

아니라, Griffiths & King(1985)을 필두로 Koenig(1993), Buttler & DuMont(1996), Giesecke & McNeil (1999), Mahmood(2002), Rehman(2003)²⁾ 등 많은 학자들이 사서가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능력(competency)이란 업무 수행자와 관찰자 모두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에 필요한 지식(knowledge), 이해(understanding), 기술(skill), 태도(attitude)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SLA 2003). 즉, 지식 혹은 이해는 어떤 것을 하는 방법이나 그것에 관한 정보를 가지는 것이며, 기술이란 자신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태도는 업무에 대한 정신적 또는 감정적인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Rehman 2000, 20) 따라서 사서직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는 사서들에게 필요한 지식, 이해, 기술, 그리고 사서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갖추고 대학도서관 현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문헌정보학계와 대학도서관 현장은 대학도서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서들의 능력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능력이 무엇이며 이를 배양하기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현장 사서의 관점에서 '현재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대학도서관 사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할 예비사서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사서를 양성하기 위해서 문헌정보학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제안하였다.

1.2 연구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현재 문헌정보학은 대학도서관이 요구하는 사서를 양성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음의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도서관 현장에서 느끼는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반영도를 조사하였다. 둘째, 도서관 현장이 사서에게 어떠한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는지 사서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안하였다.

대학도서관 예비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현직 사서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국내·외 문헌에서 제시된 사서들의 능력에 대한 요건들을 기반하

2) Griffiths와 King은 competency-based educ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사서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참고&정보서비스, 정보원 개발, 접근과 대출서비스, 조직관리, 기술적 프로세스, 연속간행물 통제 등을 문헌정보학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oenig은 운영 기술, 언어 기술,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새로운 국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Buttler와 Du Mont은 모든 형태의 정보원에 대한 지식, 적합한 참고면담 수행하기, 도서관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 적용하기, 문서작성 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구두 프레젠테이션 기술 활용하기라는 5개의 능력(competencies)을 제시하였고, Giesecke와 McNeil은 분석기술/문제해결/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기술, 창조력/혁신, 전문직 및 기술지식, 유연성/적응력, 대인관계/그룹 기술, 리더십, 조직의 이해와 글로벌적 사고, 주인의식/책임감/독립성, 계획 및 조직 기술, 자원경영, 서비스 태도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을 사서의 핵심 능력이자 조직에서 습득해야 할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Mahmood는 파키스탄의 대학도서관에서 일하게 될 미래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도서관 자동화 운영, 전자DB이용, 도서관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지식, 인터넷이용법, 좋은 대인관계 기술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경영능력, 자원개발능력, 기술봉사능력, 참고 및 정보봉사능력, IT능력, 일반적인 능력의 6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세부항목을 조사하였다. 특히, Rehman은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해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다. Majid와 Baker과 함께 기초, 편목, 대출, 정보봉사, 장서개발, 연속간행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며, Chaudhry와 Karin과 함께한 연구는 수행평가, 정책 개발, DB설계, 자동화 계획에 경영, 정보기술, 자원개발, 정보봉사, 기술봉사, 일반 능력의 6개 영역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는 Griffiths & King(1985)이 사용한 CBE (Competency-based education)³⁾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능력을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우선적으로 지식과 기술은 주요 학문 영역인 <도서관경영>, <자원개발>, <기술봉사>, <정보기술>, <참고봉사>, <정보검색> 영역으로 세분화시키고 각 부분별로 5문항씩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 예비사서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한 7 문항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체크리스트는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편찬한 『문헌정보학의 이해』와 현재 문헌정보학과 의 교과과정을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수정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각 세부항목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교과과정의 현장 반영도를 측정하였다. 예비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들을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조사 대상은 『2004 도서관연감』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선발하였다. 정규직 사서 2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23개 대학도서관⁴⁾의 정규직 사서 662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다. 설문지 실시기간은 2005년 7월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662명 중 144명(22%)으로 부터 회수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회수된 144개 중 유효 데이터인 135개를⁵⁾ 바탕으로 사서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각 항목의 1순위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이 요구하는 사서들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소규모 대학도서관이나 설문에 응하지 않은 사서들의 의견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시각

2.1 교과과정에 대한 사서의 만족도

대학도서관 현직 사서들에게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해 만족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가한 135명 중 118명만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 중 현 교과과정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25.4%였던 반면에, 현 교과과정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43.2%나 되었다.

3) competency-based education은 교육 분야에서 개발된 것으로, 사서직에 처음 적용한 것은 school media specialist의 교육과 훈련에서였으며, 인증제(자격제도)의 필수요건과 관련하여 개발되었다.

4) 전국 대학도서관 중에서 사서수가 20명 이상인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서울/수원), 계명대, 고려대, 대구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서울, 안산) 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5) 설문에 응답한 135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빈도(퍼센트)	구분	빈도(퍼센트)	
성별	남자	64명(47.4%)	근무연수	5년 미만	14명(10.4)
	여자	61명(45.9%)		5년-10년미만	11명(8.1명)
	무응답	9명(6.7%)		10년-15년미만	17명(12.6%)
직급	실무자	36명(26.7%)		15년-20년미만	20명(14.8%)
	중간관리자	64명(47.4%)		20년-25년미만	39명(28.9%)
	최고관리자	26명(19.3)		25년이상	23명(17.0%)
	무응답	9명(6.7%)	무응답	11명(8.1%)	

< 표 1 > 교과과정에 대한 사서의 만족도

구분	응답자(명)	비율(%)
매우불만족	22	18.6
불만족	29	24.6
보통	37	31.4
만족	27	22.9
매우만족	3	2.5
전체	118	100

실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래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실습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도서관 실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점점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교과과정 따로 실무 따로 라는 생각이 든다. (P대학, 6급, 여, 30년 근무)

대학마다 교과과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정보학 쪽에만 치우쳐져 있고 가장 기본적인 편목교육은 부실한 것을 볼 수 있다. 미래의 사서를 위하여 좀 더 광범위하고 형평성있는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부족하다. (C대학, 6급, 여, 28년 근무)

현장에서 필요한 기초교육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된다. 또한 졸업생이 현장에서 활용할 내용이 많지 않다. (S대학, 5급, 남, 32년 근무)

이러한 의견은 대학도서관 현장에 진출한 신입 사서들의 지적 기반의 허술함에서 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단 한 번의 실무 경험없이 도서관 현장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기초 이론만을 갖추고 도서관 현장에 나가는 신입 사서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된다. 이는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불만으로 이어진다.

2.2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현장 반영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대학도서관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도 조사하였다. 이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 109명 중 22명(20.1%)만이 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대학도서관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과반수인 55명(50.4%)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 표 2 > 교과과정의 현장 반영도

구분	응답자(명)	비율(%)
현장 매우과리	24	22.0
현장과리	31	28.4
보통	32	29.4
현장반영	20	18.3
현장매우반영	2	1.8
전체	109	100

이는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불만의 요인이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은 학계와 현장의 소통 부족으로 그 원인을 보고 있었다.

학과와 도서관 간의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실제적 교과과정이 부재한다. (J대학, 7급, 여, 14년 근무)

외국문헌에 의한 이론교육에 치우쳐 국내 현장과는 괴리된 내용이 많다. 국내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Y대학, 과장, 여, 19년 근무)

실질적인 업무에 적용 가능한 교과목이 많이 부족하다. 실무 중심의 교과과정이 부족하고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 아직까지 예전 내용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일부 교과과정이 문제이다. (D대학, 여, 8년 근무)

따라서 문헌정보학에서 현장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3.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요구하는 예비사서의 능력(competency)

현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 원인은 학계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에 있었다. 이와 더불어 현장 사서의 관점에서 대학도서관 예비사서들이 갖춰야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지식, 기술, 태도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대학도서관 현장 사서들은 사서가 갖추어야 할 능력의 우선순위를 태도(65.9%), 지식(29.6%), 기술(4.4%) 순으로 보고 있기에, 그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3.1 태도(attitudes)

태도에 대한 중요성은 정량적인 데이터보다 '예비사서들이 더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한 주관식 문항, 즉 정성적인 데이터에서 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서들은 각종의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그 지식을 표현한 기술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한다. 특히 지식을 통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명의식 또한 능력이라 평가된다. (W대학, 부판장, 여, 29년 근무)

대 이용자, 대 직원간의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용자나 직원간의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서의 기본적인 교육 외에도 이러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Y대학, 7급, 남, 13년 근무)

태도와 관련된 행동양식이 적극적으로 요구됨 지식과 기술은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행동양식은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된다. (S대학, 6급, 남, 24년 근무)

위에 나타난 현장 사서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표 3>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사서가 이용자를 직접 마주하는 봉사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적극성, 열린 마음, 사회 봉사정신, 직업적 소명의식이 상위에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사서들의 전문가적 소양을 나타내는 '지적자유에 대한 마인드'나 '이용자 요구를 파악해내는 민감성',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과 '이용자정보보호에 대한 윤리의식'이 하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는 예비사서들에게 이용자봉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부터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3 > 예비사서가 갖추어야 할 태도의 우선순위

순위	세부평가항목별 순위	1순위 비율
1위	서비스에 대한 적극성 및 열린 마음자세	38.8%
2위	사회봉사정신 및 직업적 소명의식	32.8%
3위	환경변화에 따른 도서관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적응력	11.9%
4위	지적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마인드	6.7%
5위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는 민감성	5.2%
6위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	3.7%
7위	이용자정보보호에 대한 윤리의식	0.7%

3.2 지식(knowledges)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생각하는 '예비사서가 갖추어야 할 지식'의 우선순위는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참고봉사>, <정보검색>, <정보기술>, <기술봉사>, <자원개발>, <도서관경영>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에서 <도서관경영>보다는 <참고봉사>나 <정보검색>과 같이 이용자봉사와 관련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학문 영역별 세부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첫째 '자료조직의 원리와 철학에 대한 이해'나 '도서관의 임무, 역할, 목표에 대한 이해'처럼 학문 영역의 원리나 철학을 담고 있는 지식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이용자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이해'나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장서개발에 대한 이해'와 같은 이용자 요구와 관련된 지식의 습득을 요구하고 있었다. 셋째 지식정보 생산의 원료 공급처인 대학도서관에서는 지식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고정보원에 대한 이해'와 '학술DB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사서는 다른 직군보다 수동적이고 연대의식이 부족한 직군입니다. 학계와 현장 역시 유리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업적 소명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도서관철학에 대한 이해를 끈고히 하고 사서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함양하는 데 필요한 교과과정이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P대학, 7급, 여, 15년 근무)

도서관 자료에 관련된 업무들은 기존의 방식을 수정·보완하는 형식이 많다. 자료의 조직·개발·운영 등에 관하여 원리와 역사, 즉 진행되어온 방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P대학, 6급, 여, 23년 근무)

앞서 기술되어 있지만 사서를 직업의 한 가지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철학(사상적 무장)을 갖추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K대학, 남, 6년 근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도서관에 입문할 예비사서들에게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는 문헌정보학 학문 영역의 원리와 철학을 숙지하고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4 > 예비 사서가 갖춰야할 지식의 우선순위

큰 영역			세부평가항목			
학문영역별 순위	1순위 비율		세부평가항목별 순위			1순위 비율
1위	참고봉사	25.6%	1위	참고정보원에 대한 이해		37.3%
			2위	참고면담(서비스)에 대한 이해		26.9%
			3위	이용자 교육에(information literacy) 대한 이해		20.9%
			4위	특정 주제분야에 대한 이해		14.2%
			5위	상호대차 및 문헌배달서비스에 대한 이해		0.7%
2위	정보검색	21.1%	1위	이용자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이해		31.3%
			2위	일반 검색엔진 및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		29.1%
			3위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이해		18.7%
			4위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이해		14.9%
			5위	정보검색시스템의 역사에 대한 이해		6.0%
3위	정보기술	17.3%	1위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43.6%
			2위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		25.6%
			3위	도서관자동화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24.8%
			4위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3.8%
			5위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2.3%
4위	기술봉사	16.5%	1위	자료조직의 원리와 철학에 대한 이해		53.3%
			2위	분류, 목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31.9%
			3위	자료조직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		11.9%
			4위	도서관 협동목록에 대한 이해		2.2%
			5위	색인, 초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0.7%
5위	자원개발	10.5%	1위	대학의 목적과 이용자 요구에 대한 적합한 장서개발에 대한 이해		67.2%
			2위	장서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이해		20.1%
			3위	서지도구에 대한 이해		8.2%
			4위	장서평가 및 폐기에 대한 이해		3.0%
			5위	인쇄 및 출판, 유통 등의 출판 산업에 대한 이해		1.5%
6위	도서관 경영	9.0%	1위	도서관의 임무(mission), 역할(role), 목표(objective)에 대한 이해		85.9%
			2위	개괄적인 경영 이론과 기법에 대한 이해		5.2%
			3위	도서관의 조직구조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4.4%
			4위	도서관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3.7%
			5위	도서관 예산 및 재무관리에 대한 이해		0.7%

3.3 기술(skills)

기술(skill)이란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기술의 우선순위는 지식의 우선순위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검색>, <참고봉사>, <정보기술>, <기술봉사>, <자원개발>, <도서관경영>으로 우선순위를 보였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업무 중 정보봉사와 정보조직과 관련된 기술을 충실히 습득하기를 예비사서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기술 분야의 우선순위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참고면담에서 이용자 요구 분석'이나 '자료에 대한 주제 분석', '자원개발을 위한 이용자 요구 분석'

과 같이 이용자 요구 분석을 기초로 하는 기술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둘째, '컴퓨터 하드웨어'나 '프로그래밍' 기술보다 '학술 데이터베이스 활용'이나 '소프트웨어 활용'과 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정보기술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 정도의 기술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하위에 랭크된 '정보검색결과에 대한 평가'나 'SDI와 Alert 서비스', '색인 및 초록 작성'은 이론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디지털도서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행해지는 것이었다. 넷째, 이제까지 문헌정보학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던 '이용자 만족도 측정'이나 '도서관 홍보',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

련된 능력을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는 예비사서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아마도 대학도서관에서는 실제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거나 도서관 홍보와 관련된 계획은 주로 도서관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사서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세부항목에는 없지만 외국어 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대학도서관의 외국어 능력에 대한 중요성은 주관식 문항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다양한 국가의 장서를 대상으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한문이나 영어 이외에 제2외국어에 대한 능력을 원하고 있었다.

다양한 형태와 언어로 이루어진 여러 자료들을 수집, 분류, 정리, 안내,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해독(회화는 물론)능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그

러나 영어는 어느 정도 해독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제2외국어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갖춘 사서는 드문 것 같다. 그리고 한문에 대한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겠다. 아직도 동양서서명과 저자명은 물론 내용에 많은 한문을 사용하고 있어 한문1급 정도 수준의 한자실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W대학, 5급, 남, 25년 근무)

한자나 외국어(러시아,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에 대한 기본과정 정도라도 습득한다면 대학도서관에서는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특히 자료조직 파트에서 요구된다. (K대학, 8급, 여, 15년 근무)

한문에 대한 해독능력이 매우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 영어, 한자, 독일어, 불어 등의 읽기와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C대학, 6급, 여, 22년 근무)

이처럼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는 예비사서들에게 이용자 요구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skill), 그

< 표 5 > 예비 사서가 갖춰야할 기술의 우선순위

학문 영역		세부평가항목			
학문영역별 순위	1순위 비율	세부평가항목별 순위		1순위 비율	
1위	정보검색	25.1%	1위	각종 학술 DB 활용 능력	31.1%
			2위	정보검색 전략 수립 능력	28.9%
			3위	다양한 형태의 자료 활용 능력	18.5%
			4위	정보검색 실행 능력	17.0%
			5위	정보검색결과에 대한 평가 능력(정확률, 재현률, 적합성 등)	4.4%
2위	참고봉사	21.1%	1위	참고면담 중 이용자 정보요구 분석 능력	46.7%
			2위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35.6%
			3위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이용자 교육자료 개발 능력	13.3%
			4위	최신정보주지(SDI) 및 알림(Alert) 서비스 개발에 대한 기술	4.4%
			5위	이용자 만족도 측정 능력	0.0%
2위	기술봉사	21.0%	1위	자료에 대한 주제 분석 능력	57.8%
			2위	자료조직 규칙 및 도구 활용 능력	25.2%
			3위	편목시스템 활용 능력	8.9%
			4위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자료에 대한 편목 능력	5.9%
			5위	색인, 초록 작성 능력	2.2%
4위	정보기술	17.2%	1위	각종 소프트웨어 패키지 활용 능력(오피스, 포토샵 등)	53.3%
			2위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관리 능력	22.2%
			3위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능력	14.8%
			4위	하드웨어 관리 능력	7.4%
			5위	프로그래밍 기술	2.2%
5위	자원개발	9.4%	1위	자원개발을 위한 이용자 요구분석 능력	55.6%
			2위	자료수집 및 수서 능력	22.6%
			3위	서지도구 활용 능력	17.3%
			4위	수서시스템에 대한 활용 능력	3.8%
			5위	장서평가 및 폐기에 대한 능력	0.8%
6위	도서관경영	6.2%	1위	도서관 이용과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통계분석 능력	56.7%
			2위	전략적 경영 계획 수립 능력	24.6%
			3위	내적 커뮤니케이션(모기관 포함) 능력	11.9%
			4위	도서관 홍보 능력	3.7%
			5위	외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3.0%

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 실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능력(skill)을 갖추고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4.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개선 방안

우리는 지금까지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예비사서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대학도서관 현장에 적합한 예비사서를 양성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 설문조사에 나타난 특징들을 기반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자.

첫째, 대학도서관 예비사서들에게 '이용자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 <참고봉사>나 <정보검색>이 지식과 기술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세부항목에서도 이용자봉사에 대한 지식 항목과 이용자 요구 분석에 기반 한 기술 항목이 1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는 모든 업무의 중심이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참고봉사>나 <정보검색>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봉사>나 <자원개발>, <도서관 경영>에서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둘째, 문헌정보학의 철학과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강조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어떤 능력보다 중요하다. 실제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사서직과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철학적 원리를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경영>에서 대학도서관 경영 기법이나 대학도서관 관리 방법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대학도서관의 임무, 역할, 사명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기술봉사>, <참고봉사>에서도 대학도서관 장서와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원리와 규칙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사서로서의 소양과 자세를 갖출 수 있는 내용으로 교과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다른 어떠한 능력보다 사서로서의 적극적인 봉사 자세와 성실, 친절, 자긍심, 소명의식을 요구하였다. 현재 교과과정에서 '봉사'와 관련되어 '참고봉사', '정보봉사' 등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기는 하나 대학도서관 사서로서 요구되는 봉사 태도를 갖추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사서가 갖추어야 할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참고봉사> 과목에서만 언급할 것 아니라 <도서관경영>에서 고객만족경영 부분이나 <정보검색>에서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강의할 때에도 함께 가르쳐야 할 기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대학도서관 요구를 반영하는 실무위주의 교과과정으로 편성해야 한다. 현재 대학도서관 업무를 보면 디지털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없다. <정보기술>과 <정보검색>분야는 물론이고 <기술봉사> 영역에서 자동화목록시스템을 활용한다든지, <자원개발> 영역에서 전자자원들을 개발하는 일, <참고봉사> 영역에서 디지털 참고봉사를 행해야 하는 등 디지털을 활용한 실무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이론의 습득보다는 대학도서관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무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하여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신규 사서들을 재교육하는 부담감을 줄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4학년 과정에서 '사서실습'이나 '대학도서관 인턴십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언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국가의 장서를 개발하고 조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실제, 사서들의 주관식 응답 내용을 보면 대학도서관 초보사서들이 기본적인 한자능력이 부족하고 기초적인 제2외국어 해석 능력이 없음을 지적

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문헌정보 교과과정의 통해 한자 능력의 경우 숙련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2외국어 능력의 경우 교과과정을 통해 배양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도서관에서 예비사서에게 요구하는 외국어 능력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예비사서의 경우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한 개인 학습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원하는 사서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서관 현장과 도서관협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학계는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현장은 학계에 자신들의 요구를 끊임없이 표출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최소전공학점제로 인해 부실해진 지적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대학에서는 최소전공학점제로 운영하고 있어 대학4년 동안 이수하는 필수 교과목 수가 매우 적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대학도서관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사서를 양성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내는 일이 중요하다.

대학도서관 현직 사서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때 대학도서관에서 예비사서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태도, 지식, 기술 순이었다. 무엇보다 대학도서관에서는 이용자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다른 어떠한 능력보다 예비사서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 영역의 이용자봉사와 관련된 <참고봉사>와 <정보검색> 과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밖에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대학도서관에서

는 ‘이용자 중심의 사고를 하는’, ‘문헌정보학의 철학과 원리를 숙지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사서로서의 태도를 갖춘’, ‘이론만이 아닌 실무를 겸비한’ 예비사서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예비사서를 양성할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대학도서관에 맞는 ‘맞춤형 사서’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동철. 1999.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전공의 학부 구성 및 사서 자격 인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4): 157-181.
- 노영희. 2005.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1): 59-80.
- 박일중. 1999. 국내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의 현황 및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197-221.
- 엄영애. 2003. 문헌정보학의 코어 교과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33-49.
- 이제환. 2003.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정보정책』, 서울: 한울.
- 정연경. 1997. 대학도서관 목록사서의 역할 및 자격 요건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14(2): 143-163.
- 한복희. 1997. 변화하는 도서관환경에 대비한 문헌정보학과 교과의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2): 179-198.
- 한국문헌정보학회 문헌정보학의 이해 편찬위원회. 2004. 『문헌정보학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Buttler, L. and Dumont, R.R.. 1996.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mpetencies revisited". *Journal of Education for*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1): 44-62.
- Giesecke, J. and McNeil, B.. 1999. "Core competencies and the learning organization". *Library Administration & Management*, 13(3): 158-166.
- Griffiths, J.M. and King, D.W.. 1985. *New directio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Westport: Greenwood.
- Sharma, Jaideep. 2004. "Expectations versus Reality: A study of Professional Competencies in College Libraries in India".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352-363.
- Koenig, Micheal E.D.. 1993. "Education requirements for a library-oriented career in information Management". *Library Trends*, 42(2): 227-229.
- Mahmood, K.. 2002. "Competencies needed for future academic librarians in Pakistan", *Education for Information*, 20(1): 27-43.
- Rehman, S.U.. 2003. "Information studies curriculum based on competency defini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3): 276-295.
- Rehman, S.U., 2000. *Preparing the information professional: An agenda for the future*. Westport: Greenwood.
- ALA. 1999. Congress of Professional Education. <http://www.ala.org/ala/hrdrbucket/1stcongressonpro/1stcongressassociation.htm> [cited 2005.8.8]
- ALA. LTA Competency. <http://www.ala.org/ala/Issirt/Issirtresources/CTLTACompsrev2.doc> [cited 2005.6.5]
- ALA. 1992. Standard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http://www.ala.org/ala/accreditation/accredstandards/standard.s.htm> [cited 2005.8.8]
- ASERL. 2003. ASERL Competencies For Research Librarians. <http://www.aserl.org/aserlcompetencies.pdf> [cited 2005.6.5]
- SLA. 2003. Competencies for Special Librarians of the 21st Century. <http://www.sla.org/content/SLA/professional/meaning/competency.cfm> [cited 2005.8.9]